

하느님의 본성

THE NATURE OF GOD

2:0.1 하느님에 대한 사람의 최고 가능한 개념이 시원적이고 무한한 개인성(個人性)으로 인간의 관념과 이상 속에 포용될 때, 신(神)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신성한 본성의 어떤 특징들을 배우는 것이 무방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본성은 네바돈의 미가엘이 그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속에서 그리고 육신으로의 그의 훌륭한 필사 삶에서 보여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계시로 가장 잘 납득될 수 있다. 또한 만일 사람이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낙원천국 창조주를 참된 영적 아버지로 우러러 본다면 신성한 본성은 사람에게 의해 더 잘 납득될 수 있다.

INASMUCH as man's highest possible concept of God is embraced within the human idea and ideal of a primal and infinite personality, it is permissible, and may prove helpful, to study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divine nature which constitute the character of Deity. The nature of God can best be understood by the revelation of the Father which Michael of Nebadon unfolded in his manifold teachings and in his superb mortal life in the flesh. The divine nature can also be better understood by man if he regards himself as a child of God and looks up to the Paradise Creator as a true spiritual Father.

2:0.2 하느님의 본성은 최극 관념들의 계시 속에서 배워질 수 있고, 신성한 성격은 천상의 이상들에 대한 묘사로서 상상될 수 있지만, 신성한 본성의 모든 계시들 중 가장 잘 깨우쳐주고 영적 교화를 주는 것은, 신성의 충만한 인식에 달성하기 이전과 이후, 나사렛 예수의 종교적 삶에 대한 이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만일 미가엘의 육신화 된 삶이 사람에게 대한 하느님의 계시의 근간으로 채택된다면, 우리는 우주 아버지의 개인성의 본성과 성격에

The nature of God can be studied in a revelation of supreme ideas, the divine character can be envisaged as a portrayal of supernal ideals, but the most enlightening and spiritually edifying of all revelations of the divine nature is to be found in the comprehension of the religious life of Jesus of Nazareth, both before and after his attainment of full consciousness of divinity. If the incarnated life of Michael is taken as the background of the revelation of

대한 인간 개념의 더 앞선 계몽과 통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신성한 본성에 관하여 어떤 관념들과 이상들을 인간 언어 상징으로 나타내려고 시도할 수 있겠다.

2:0.3 하느님에 대한 인간 개념을 확대시키고 영성화 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 우리는 필사마음이 갖는 제한된 능력 때문에 엄청나게 장애를 받는다. 또한 우리는 신성한 가치들을 묘사하고 유한자, 사람의 필사마음에게 영적 의미들을 제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설명하고 비교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의 빈곤과 그리고 제한된 언어로 인해 우리의 임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 우주 아버지의 증여된 조절자가 필사마음 속에 내주하고 창조주 아들의 진리 영이 가득 퍼져있는 그 사실이 아니라면, 하느님에 대한 인간 개념을 확대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거의 쓸모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개념의 확대를 도와주는 이 신성한 영(靈)들의 현존에 의존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본성을 사람의 마음속에 더욱 묘사하고자 시도하는 나의 권한 수행을 기쁘게 시작한다.

1. 하느님의 무한성

God to man, we may attempt to put in human word symbols certain ideas and ideals concerning the divine nature which may possibly contribute to a further illumination and unification of the human concept of the nature and the character of th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In all our efforts to enlarge and spiritualize the human concept of God, we are tremendously handicapped by the limited capacity of the mortal mind. We are also seriously handicapped in the execution of our assignment by the limitations of language and by the poverty of material which can be utilized for purposes of illustration or comparison in our efforts to portray divine values and to present spiritual meanings to the finite, mortal mind of man. All our efforts to enlarge the human concept of God would be well-nigh futile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mortal mind is indwelt by the bestowed Adjuster of the Universal Father and is pervaded by the Truth Spirit of the Creator Son. Depending, therefore, on the presence of these divine spirits within the heart of man for assistance in the enlargement of the concept of God, I cheerfully undertake the execution of my mandate to attempt the further portrayal of the nature of God to the mind of man.

1. THE INFINITY OF GOD

2:1.1 “무한자와 접하지만,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다. 신성한 발자취는 알 수 없다.” “그의 납득은 무한하고 그의 위대함은 헤아릴 수 없다.” 아버지 현존의 눈부신 빛은, 그리하여 그의 하급창조체들에게는 그가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한다.” “하느님은 위대하시며; 우리는 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느님이 정말로 땅 위에 거하겠는가? 보라, 하늘(우주)과 하늘들의 하늘(우주들의 우주)은 그를 담을 수 없다.” “그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려운가, 지나간 그 행적들은 얼마나 찾아내기 어려운가!”

2:1.2 “오직 한 분의 하느님만 계시다. 무한한 아버지, 그는 또한 신실한 창조주이시다.” “신성한 창조주는 또한 우주 결정자, 혼들의 근원이자 운명이다. 그는 최극 혼, 시원 마음이며 모든 창조의 무제한적 영이다.” “위대한 조정자는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는 장엄과 영광으로 찬란하다.” “창조주 하느님에게는 두려움과 미움이 전혀 없다. 그는 불멸하고, 영원하고 자아-실재하며 신성하고 풍성하다.” “만물의 하늘 선조(先祖)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심오하고 불가해한 분인가!” “무한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에서

"Touching the Infinite, we cannot find him out. The divine footsteps are not known." "His understanding is infinite and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The blinding light of the Father's presence is such that to his lowly creatures he apparently "dwells in the thick darkness." Not only are his thoughts and plans unsearchable, but "he does great and marvelous things without number." "God is great; we comprehend him not, neither can the number of his years be searched out." "Will God indeed dwell on the earth? Behold, the heaven (universe) and the heaven of heavens (universe of universes) cannot contain him." "How unsearchable are his judgments and his ways past finding out!"

"There is but one God, the infinite Father, who is also a faithful Creator." "The divine Creator is also the Universal Disposer, the source and destiny of souls. He is the Supreme Soul, the Primal Mind, and the Unlimited Spirit of all creation." "The great Controller makes no mistakes. He is resplendent in majesty and glory." "The Creator God is wholly devoid of fear and enmity. He is immortal, eternal, self-existent, divine, and bountiful." "How pure and beautiful, how deep and unfathomable is the supernal Ancestor of all things!" "The Infinite is most

가장 탁월하시다. 그는 시작이요
끝이며, 모든 선함과 완전한 목적의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하며; 영원한 창조주는
원인들 중의 원인이다.”

2:1.3 아버지의 영원한 우주 개인성의
엄청난 현시의 무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무한과 영원 둘 모두에
대해 분별불가적으로 자아-의식
하며; 마찬가지로 그는 완전성과
힘을 충분히 아신다. 그는 우주에서
자신의 신성한 합동자(合同者)들을
제외하고, 자신에 대한 완전하고
엄밀하고 완벽한 평가를 체험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2:1.4 아버지는 그의 주(主)우주의 다양한
구역들에서 때때로 변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각기 다른 요구의
필요를 끊임없이 그리고 반드시
충족시킨다. 위대한 하느님은 자신을
알고 납득하며; 그는 완전성의 모든
그의 시원의 속성들을 무한히 자아-
의식 한다. 하느님은 조화우주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는 우주의 실험가도 아니다. 우주
주권자들은 모험에 들어갈 수 있고;
별자리 아버지들은 실험할 수 있고;
체계 우두머리들은 연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 아버지는
시작에서 끝을 알며, 그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은 그의 광대한
권역의 모든 우주의 각 세계, 체계
그리고 별자리 안에 있는 그의 모든
종속들의 모든 실험들과 모든
모험들을 실제적으로 포용하고

excellent in that he imparts himself to
men.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the Father of every good and perfect
purpos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 eternal Creator is the
cause of causes."

Notwithstanding the infinity of the
stupendous manifestations of the
Father's eternal and universal
personality, he is unqualifiedly self-
conscious of both his infinity and
eternity; likewise he knows fully his
perfection and power. He is the only
being in the universe, aside from his
divine co-ordinates, who experiences
a perfect, proper, and complete
appraisal of himself.

The Father constantly and unfailingly
meets the need of the differential of
demand for himself as it changes from
time to time in various sections of his
master universe. The great God
knows and understands himself; he is
infinitely self-conscious of all his
primal attributes of perfection. God is
not a cosmic accident; neither is he a
universe experimenter. The Universe
Sovereigns may engage in adventure;
the Constellation Fathers may
experiment; the system heads may
practice; but the Universal Father se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and his
divine plan and eternal purpose
actually embrace and comprehend all
the experiments and all the adventures
of all his subordinates in every world,
system, and constellation in every
universe of his vast domains.

이해한다.

2:1.5 하느님에게 새로운 사물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조화우주의 어떤 결과도 전혀 놀라운 것이 될 수 없으며; 그는 영원의 순환 속에 거주하신다. 그는 시작이나 끝나는 날이 없이 계신다. 하느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시간은 어떤 주어진 순간에든지 현재이다. 그는 위대하며 유일한 스스로 계신 이이다.

No thing is new to God, and no cosmic event ever comes as a surprise; he inhabits the circle of eternity. He is without beginning or end of days. To God there is no past, present, or future; all time is present at any given moment. He is the great and only I AM.

2:1.6 우주 아버지는 그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특성 없이 무한하다; 바로 이 사실이,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유한한 물질적 존재들 그리고 다른 하급 피조 지능존재들과의 모든 직접적인 개인의 교통으로부터 그를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The Universal Father is absolutely and without qualification infinite in all his attributes; and this fact, in and of itself, automatically shuts him off from all direct personal communication with finite material beings and other lowly created intelligences.

2:1.7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갖가지 창조체들과의 접촉과 교통을 위한, 운명 지어진 그러한 주선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신성에 있어서 완전함에도, 또한 행성종족들의 바로 그 살과 피를 가진 자연본성으로 때때로 함께 하는, 하느님의 낙원천국 아들들의 개인성으로 너희들 중의 하나가 되고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 그리하여, 말하자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한 미가엘의 증여에서 나타났듯이, 하느님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급 기원의 물질적 존재들에게 접근하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에게 봉사하는 무한 영의 개인성들,

And all this necessitates such arrangements for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his manifold creatures as have been ordained, first, in the personalities of the Paradise Sons of God, who, although perfect in divinity, also often partake of the nature of the very flesh and blood of the planetary races, becoming one of you and one with you; thus, as it were, God becomes man, as occurred in the bestowal of Michael, who was called interchangeably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And second, there are the personalities of the Infinite Spirit, the various orders of the seraphic hosts and other celestial intelligences who draw near to the

성(聖)천사군 들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기타 천상 지능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란시아의 인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예고 없이 그리고 설명 없이 보내지는, 내주하도록 보내지는 위대한 하느님 자신의 실제 선물인 미(未)개인적 신비 감시자들, 생각조절자들이 존재한다. 끝없이 풍부하게, 그들은 하느님-의식 또는 이를 위한 잠재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필사자들의 미천한 마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내주하기 위하여 영광의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온다.

2:1.8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다른 여러 방법들로,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고 유한(有限) 이해력을 철저히 초월하는 방법들로, 낙원천국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리고 기꺼이 내려오시며, 그리고 다른 한편 그의 창조체 자녀들의 유한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의 무한성을 변형시키고 희석시키며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절대성을 점차 감소시키는 일련의 개인성 분배들을 통하여, 무한한 아버지는 그의 멀리 퍼진 우주의 많은 영역에 속한 다양한 지능존재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2:1.9 그의 무한성, 영원성, 그리고 시원성의 사실 그리고 실체로부터 조금도 낮아짐이 없이,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해왔고 지금도 행하며, 또한 행함을 영원토록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 유란시아에 거주하는 그러한

material beings of lowly origin and in so many ways minister to them and serve them. And third, there are the impersonal Mystery Monitors, Thought Adjusters, the actual gift of the great God himself sent to indwell such as the humans of Urantia, sent without announcement and without explanation. In endless profusion they descend from the heights of glory to grace and indwell the humble minds of those mortals who possess the capacity for God-consciousness or the potential therefor.

In these ways and in many others, in ways unknown to you and utterly beyond finite comprehension, does the Paradise Father lovingly and willingly downstep and otherwise modify, dilute, and attenuate his infinity in order that he may be able to draw nearer the finite minds of his creature children. And so, through a series of personality distributions which are diminishingly absolute, the infinite Father is enabled to enjoy close contact with the diverse intelligences of the many realms of his far-flung universe.

All this he has done and now does, and evermore will continue to do, without in the least detracting from the fact and reality of his infinity, eternity, and primacy. And these things are absolutely true, notwithstanding the difficulty of their comprehension, the mystery in which

창조체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충분히
납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they are enshrouded, or the
impossibility of their being fully
understood by creatures such as dwell
on Urantia.

2:1.10 최초 아버지가 그의 계획에서 무한하고
그의 목적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이들 신성한 계획과 목적을 전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유한
존재에게든지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사 사람은 아버지의
목적들을 우주가 진보하는 연속
차원들의 완성되어지는 창조체
상승계획 수행과 이에 따라서
그들이 드러나는데 따라서, 오직
이따금, 여기저기에서, 얼핏 볼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무한성의
의의(意義)에 에워싸여 있을 수는
없지만, 무한하신 아버지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자녀의 모든
유한을 가장 분명하고 충만하게
이해하고 사랑스럽게 포용하신다.

Because the First Father is infinite in
his plans and eternal in his purposes,
it is inherently impossible for any
finite being ever to grasp or
comprehend these divine plans and
purposes in their fullness. Mortal man
can glimpse the Father's purposes
only now and then, here and there, as
they are revealed in relation to the
outworking of the plan of creature
ascension on its successive levels of
universe progression. Though man
cannot encompass the significance of
infinity, the infinite Father does most
certainly fully comprehend and
lovingly embrace all the finity of all
his children in all universes.

2:1.11 아버지는 수많은 상급 낙원천국
존재들과 신성과 영원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낙원천국 삼위일체인
그의 동격 동료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와 무한성과 필연인 우주
시원성을 충만히 나누는지는 의문을
갖는다. 개인성의 무한성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개인성의 모든
유한성을 포용하며;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갖는다.”라고
선언하는 가르침은 진리—글자
그대로 진리—이다. 필사 사람 속에
내주하는 우주 아버지의 순수한 신(神)의
그 단편은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
아버지들의 아버지의 무한성의

Divinity and eternity the Father shares
with large numbers of the higher
Paradise beings, but we question
whether infinity and consequent
universal primacy is fully shared with
any save his co-ordinate associates of
the Paradise Trinity. Infinity of
personality must, perforce, embrace
all finitude of personality; hence the
truth -- literal truth -- of the teaching
which declares that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That
fragment of the pure Deity of the
Universal Father which indwells
mortal man *is* a part of the infinity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the
Father of Fathers.

일부분이시다.

2.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성

2:2.1 너희 옛 선지자들도 우주 아버지의 영원한, 시작도-없고, 끝도-없는 순환적인 본성을 이해하였다. 하느님은 자신의 우주들의 우주 안에 글자 그대로 그리고 영원히 현존한다. 그는 모든 그의 절대 장엄과 영원한 위대함을 가지고 현재 순간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시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시대에 두루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였다. 신성한 온전무결성 안에 무한한 완전성이 있다. “나는 주님이며; 나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들의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가 빛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행성사이의 일들에 관한 그의 행위에는 “아무런 변동 가능성도 없고 변화의 그림자조차 없음”을 드러낸다. 그는 “시작에서 끝을 선언한다.” 그는 말씀 하신다: “나의 조언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아들 안에서 세운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계획과 목적은 그 자신처럼 : 영원하고 완전하며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

2:2.2 아버지의 명령에는 완벽의 최종과 충만의 완전성이 있다. “하느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언제까지나 늘 그럴 것이며;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 없고 어떤

2. THE FATHER'S ETERNAL PERFECTION

Even your olden prophets understood the eternal, never-beginning, never-ending, circular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God is literally and eternally present in his universe of universes. He inhabits the present moment with all his absolute majesty and eternal greatnes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and this life is eternal life." Throughout the eternal ages it has been the Father who "gives to all life." There is infinite perfection in the divine integrity. "I am the Lord; I change not." Our knowledge of the universe of universes discloses not only that he is the Father of lights, but also that in his conduct of interplanetary affairs there "is no variableness neither shadow of changing." He "declares the end from the beginning." He says: "My counsel shall stand; I will do all my pleasures"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I purposed in my Son." Thus are the plans and purposes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like himself: eternal, perfect, and forever changeless.

There is finality of completeness and perfection of repleteness in the mandates of the Father. "Whatsoever God does, it shall be forever; nothing can be added to it nor anything taken

것도 거기에서 감해질 수 없다.” 우주 아버지는 지혜와 완전성에 대한 그의 기원적 목적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의 조언들은 확고하고 그의 의도는 변경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의 행위들은 신성하고 오류가 없다. “그에게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시간과 같다.” 신성의 완전성과 영원의 장엄함은 필사 사람의 제한된 마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언제까지나 초월한다.

2:2.3 변함없는 하느님의 반응은, 그의 영원한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의 피조 지능존재들의 변화하는 태도와 바뀌는 마음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외관상 그리고 피상적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표면의 아래 그리고 밖을 향한 모든 현시(顯示)의 밑에는, 영원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목적, 영속하는 계획이 여전히 있다.

2:2.4 바깥 우주들에서는, 완전성은 부득이 상대적인 용어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앙우주 그리고 특별히 낙원천국에서는, 완전성은 희석되지 않으며; 어떤 위상들에서는 절대이기도 하다. 삼위일체 현시는 신성한 완전성을 다양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을 얽게 하지는 않는다.

2:2.5 하느님의 시원적 완전성은 어떤 가정되는 정의(正義)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신성한 본성인 선천적 선(善)의 완전성에 들어 있다. 그는 최종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하다.

from it." The Universal Father does not repent of his original purposes of wisdom and perfection. His plans are steadfast, his counsel immutable, while his acts are divine and infallible. "A thousand years in his sight are but as yesterday when it is past and as a watch in the night." The perfection of divinity and the magnitude of eternity are forever beyond the full grasp of the circumscribed mind of mortal man.

The reactions of a changeless God, in the execution of his eternal purpose, may seem to var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attitude and the shifting minds of his created intelligences; that is, they may apparently and superficially vary; but underneath the surface and beneath all outward manifestations, there is still present the changeless purpose, the everlasting plan, of the eternal God.

Out in the universes, perfection must necessarily be a relative term, but in the central universe and especially on Paradise, perfection is undiluted; in certain phases it is even absolute. Trinity manifestations vary the exhibition of the divine perfection but do not attenuate it.

God's primal perfection consists not in an assumed righteousness but rather in the inherent perfection of the goodness of his divine nature. He is final, complete, and perfect. There is

그의 의로운 성격의 아름다움과 완전성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간의 세계들에서 살아있는 실재들의 전체 기획이 아버지의 낙원천국 완전성을 공유하는 체험인 높은 운명을 향해 모든 의지창조체들을 들어 올리는 신성한 목적에 집중되어있다. 하느님은 자아-중심이지도 않고 자아-억제이지도 않으며; 그는 광대한 우주들의 우주의 모든 자아-의식 창조체들에게 자신을 증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no thing lacking in the beauty and perfection of his righteous character. And the whole scheme of living existences on the worlds of space is centered in the divine purpose of elevating all will creatures to the high destiny of the experience of sharing the Father's Paradise perfection. God is neither self-centered nor self-contained; he never ceases to bestow himself upon all self-conscious creatures of the vast universe of universes.

2:2.6 하느님은 영원히 그리고 무한하게 완전하며, 그는 자기 자신의 체험으로는 불완전성을 몸소 알 수 없지만, 모든 낙원천국 창조주 아들들의 진화 우주들에 속한 모든 투쟁하는 창조체들의 불완전함의 모든 체험에 대한 의식을 공유한다. 완전성의 하느님의 개인적이고 해방시키는 손길은 도덕적 식별의 우주 차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저들 필사창조체들의 본성을 둘러싸고 그 가슴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고는 신성한 현존의 접촉을 통하여, 우주 아버지는 전체 우주의 모든 도덕적 존재의 진화 생애 속에서 미성숙과 불완전성과 함께 하는 체험에 실제로 참여한다.

God is eternally and infinitely perfect, he cannot personally know imperfection as his own experience, but he does share the consciousness of all the experience of imperfectness of all the struggling creatures of the evolutionary universes of all the Paradise Creator Sons. The personal and liberating touch of the God of perfection overshadows the hearts and encircuits the natures of all those mortal creatures who have ascended to the universe level of moral discernment. In this manner, as well as through the contacts of the divine presence, the Universal Father actually participates in the experience *with* immaturity and imperfection in the evolving career of every moral being of the entire universe.

2:2.7 인간의 한계들, 잠재적 악은 신성한 본성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악과 함께 하는 필사 체험과 거기에서의 모든 사람의 관계들은 시간의 자녀들—낙원천국으로부터

Human limitations, potential evil, are not a part of the divine nature, but mortal experience *with* evil and all man's relations thereto are most certainly a part of God's ever-

나오는 모든 창조주 아들에 의해 창조되어왔거나 진화되어온 도덕적 책임을 가진 창조체들—안에서의 하나님의 항상-확대하는 자아-실현의 일부분인 것이 아주 확실하다.

expanding self-realization in the children of time -- creatures of moral responsibility who have been created or evolved by every Creator Son going out from Paradise.

3. 공의(公義)와 정의(正義)

3. JUSTICE AND RIGHTEOUSNESS

2:3.1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며; 따라서 그는 공정하다. “주님은 그의 모든 방법에 있어서 정의롭다.” “‘내가 행한 모든 것 중에 원인 없이 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전적으로 정의롭다.” 우주 아버지의 공의(公義)는 그의 창조체들의 활동과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에게는 어떤 사악함도 없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어떤 선물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God is righteous; therefore is he just. "The Lord is righteous in all his ways." "I have not done without cause all that I have done,' says the Lord." "The judgments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The justice of the Universal Father cannot be influenced by the acts and performances of his creatures, "for there is no iniquity with the Lord our God, no respect of persons, no taking of gifts."

2:3.2 그러한 하느님께, 그의 변치 않는 천의(天意)를 바꾸라고, 그래서 그의 현명한 자연 법칙들과 의로운 영적 명령의 작용으로 인한 마땅한 결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철없이 간청하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속지 말라; 하느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사람이 뿌린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릇된 행위의 결과를 거두는 공의(公義)에 있어서도, 이 신성한 공의는 항상 자비로 완화된다. 무한한 지혜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든지 내려질 공의와 자비의 비율을 결정하는 영원한 중재자이다. 그릇된 행위와 하느님

How futile to make puerile appeals to such a God to modify his changeless decrees so that we can avoid the just consequences of the operation of his wise natural laws and righteous spiritual mandates! "Be not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soever a man sows that shall he also reap." True, even in the justice of reaping the harvest of wrongdoing, this divine justice is always tempered with mercy. Infinite wisdom is the eternal arbiter which determines the proportions of justice and mercy which shall be meted out in any given circumstance. The greatest punishment (in reality an inevitable

정부에 대항하는 고의적 반역에 대한 가장 큰 형벌(실제로는 불가피한 결과)은 그 정부의 한 개별적 주체로서의 존재를 잃는 것이다. 진심에서 나온 죄의 최종적 결과는 절멸(絶滅)이다. 결국에는, 그러한 죄와-동일시되는 그러한 개별존재들은 사악(邪惡)을 포용함으로 전적으로 비(非)실체가 되어 스스로를 파괴해 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창조체의 사실적 사라짐은 그 우주에서 행해지는 운명 지어진 공의의 절차가 충분히 따라졌을 때까지 항상 연기된다.

2:3.3 실재의 중지는 대개 영역 또는 영역들의 섭리시대나 신시대적 판결이 있을 때 공포된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그것은 행성의 섭리시대의 끝에 온다. 실재의 중지는 행성협의회로부터 창조주 아들의 법정을 거쳐 옛적으로 늘계신이들의 심판법정에 이르는 모든 사법권을 갖는 법정들의 합동 활동에 의하여, 그러한 시기에 공포될 수 있다. 괴멸의 명령은 그릇된 일을 행한 자가 거주하는 구체에서 비롯된 고발에 대한 파기될 수 없는 확인 이후에 초우주의 상급 법원에서 비롯한다; 그 다음에는, 소멸 판결이 높은 곳에서 확인되고 나면, 집행은 초우주의 본부에 거주하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일하는 판사들의 직접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consequence) for wrongdoing and deliberate rebell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God is loss of existence as an individual subject of that government. The final result of wholehearted sin is annihilation. In the last analysis, such sin-identified individuals have destroyed themselves by becoming wholly unreal through their embrace of iniquity. The factual disappearance of such a creature is, however, always delayed until the ordained order of justice current in that universe has been fully complied with.

Cessation of existence is usually decreed at the dispensational or epochal adjudication of the realm or realms. On a world such as Urantia it comes at the end of a planetary dispensation. Cessation of existence can be decreed at such times by coordinate action of all tribunals of jurisdiction, extending from the planetary council up through the courts of the Creator Son to the judgment tribunals of the Ancients of Days. The mandate of dissolution originates in the higher courts of the superuniverse following an unbroken confirmation of the indictment originating on the sphere of the wrongdoer's residence; and then, when sentence of extinction has been confirmed on high, the execution is by the direct act of those judges residential on, and operating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superuniverse.

2:3.4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죄와-동일시된 존재는 즉시 그가 존재해 오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그러한 숙명으로부터는 부활이 전혀 없으며; 그것은 영속하며 그리고 영원하다. 정체인 살아 있는 에너지 요소들은, 시간의 변환들과 공간의 변형들에 의해, 그것들이 언젠가 창발하였던 조화우주의 잠재들 속으로 분해된다. 사악하게 된 자의 개인성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증할 수도 있는 선택과 최종 결정에 창조체가 실패함으로써, 지속적인 생명 매체를 빼앗긴 것이다. 연합된 마음에 의한 계속되는 죄 포용은 사악함과 완벽함의 자아-정체화달성 안에서 극도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중지됨에 따라, 조화우주로 분해됨에 따라, 그렇게 고립된 개인성은 창조의 대혼(大魂) 속으로 흡수되어, 최극존재의 진화하는 체험의 일부분이 된다. 그것은 결코 다시 개인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의 정체는 그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조절자-내주 개인성의 경우에는, 지속되는 조절자의 실체 속에서 체험적 영적 가치들이 생존한다.

2:3.5 실체의 현재 차원들 사이의 어떤 우주 경쟁에서든지, 상급 차원의 개인성이 하급 차원의 개인성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된다. 우주 논쟁의 이 필연적 결말은 본질특성으로서의 신성이 어떤 의지 창조체이든지 실체성 또는 실제성의

When this sentence is finally confirmed, the sin-identified being instantly becomes as though he had not been. There is no resurrection from such a fate; it is everlasting and eternal. The living energy factors of identity are resolved by the transformations of time and the metamorphoses of space into the cosmic potentials whence they once emerged. As for the personality of the iniquitous one, it is deprived of a continuing life vehicle by the creature's failure to make those choices and final decisions which would have assured eternal life. When the continued embrace of sin by the associated mind culminates in complete self-identification with iniquity, then upon the cessation of life, upon cosmic dissolution, such an isolated personality is absorbed into the oversoul of creation, becoming a part of the evolving experience of the Supreme Being. Never again does it appear as a personality; its identity becomes as though it had never been. In the case of an Adjuster-indwelt personality, the experiential spirit values survive in the reality of the continuing Adjuster.

In any universe contest between actual levels of reality, the personality of the higher level will ultimately triumph over the personality of the lower level. This inevitable outcome of universe controversy is inherent in the fact that divinity of quality equals the degree of reality or actuality of

정도와 동등하다는 사실에서 선천적이다. 순전한 악, 완벽한 잘못, 고의적 죄, 그리고 수그러지지 않은 사악은 선천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자멸이다. 조화우주의 비실체인 그러한 태도들은 정의로운 판결의 우주 법정들이 공의(公義)-결정의 명령을 보류하는 과도기 자비-관용과 그리고 공정성을-찾아내는 기능구조들 때문에 오직 우주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

any will creature. Undiluted evil, complete error, willful sin, and unmitigated iniquity are inherently and automatically suicidal. Such attitudes of cosmic unreality can survive in the universe only because of transient mercy-tolerance pending the action of the justice-determining and fairness-finding mechanisms of the universe tribunals of righteous adjudication.

2:3.6 지역우주들에서의 창조주 아들의 통치는 창조와 영성화의 하나이다. 이들 아들들은 진보하는 필사자 상승이라는 낙원천국 계획의 효력적인 집행에, 반역자들과 그릇된 생각을 한 자들을 복귀시키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지만,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수고들이 마침내 그리고 언제까지나 거부되면 최종 괴멸 명령이 옛적으로 늘계신이들의 관할권 밑에서 움직이는 기세들에 의해 집행된다.

The rule of the Creator Sons in the local universes is one of creation and spiritualization. These Sons devote themselves to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Paradise plan of progressive mortal ascension, to the rehabilitation of rebels and wrong thinkers, but when all such loving efforts are finally and forever rejected, the final decree of dissolution is executed by forces act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ncients of Days.

4. 신성한 자비

4. THE DIVINE MERCY

2:4.1 자비는 단순히, 지식의 완전성과 유한 창조체들의 타고난 연약성과 환경의 장애를 충분히 인식하는데서 나오는 그 지혜에 의해 완화된 공의일 뿐이다. “우리 하느님은 연민이 가득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참으시며, 자비가 풍부하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그가 충분하리만큼

Mercy is simply justice tempered by that wisdom which grows out of perfection of knowledge and the full recognition of the natural weaknesses and environmental handicaps of finite creature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gracious, long-suffering, and plenteous in mercy." Therefore "whosoever calls upon the Lord shall be saved," "for he will abundantly

용서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자비는 영속에서 영속으로 이어지며”; 정말로, “그의 자비는 언제까지나 지속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자애로움, 심판 그리고 정의(正義)를 베푸는 주님이며, 이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의 자녀를 고의적으로 괴롭히지도 않고 슬프게 하지도 않는데, “이는 내가” 자비의 아버지이고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2:4.2

하느님은 선천적으로 친절하고, 본성적으로 연민이 가득하시며, 영속적으로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의 사랑함-친절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영향도 결코 필요하지 않다. 창조체의 필요만으로도 아버지의 온화한 자비와 그의 구원하는 은혜의 총만한 흐름을 보장하기에 온통 충분하다. 하느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이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더 잘 납득할수록, 그를 용서하는 것,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2:4.3

오직 무한한 지혜의 식별력만이 정의로운 하느님으로 하여금 그리고 동시에 어떤 주어진 우주 상황 안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의 우주 자녀들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으로 괴로움을 결코 받지 않으며; 하느님은 결코 상반되는 입장의 희생이 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모든 것-알고계심은 그의 영원한

pardon." "The mercy of the Lor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es, "his mercy endures forever." "I am the Lord who executes loving-kindness, judgment,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for in these things I delight." "I do not afflict willingly nor grieve the children of men," for I am "the Father of mercies and the God of all comfort."

God is inherently kind, naturally compassionate, and everlastingly merciful. And never is it necessary that any influence be brought to bear upon the Father to call forth his loving-kindness. The creature's need is wholly sufficient to insure the full flow of the Father's tender mercies and his saving grace. Since God knows all about his children, it is easy for him to forgive. The better man understands his neighbor, the easier it will be to forgive him, even to love him.

Only the discernment of infinite wisdom enables a righteous God to minister justice and mercy at the same time and in any given universe situation. The heavenly Father is never torn by conflicting attitudes towards his universe children; God is never a victim of attitudinal antagonisms. God's all-knowingness unfailingly directs his free will in the

본성의 그의 모든 신성한 속성과
무한 본질특성의 요구들을
완전하게, 동시에, 그리고 균등하게
만족시키는 그 우주 행위성의
선택에 그의 자유의지를 틀림없이
이끈다.

choosing of that universe conduct
which perfectly, simultaneously, and
equally satisfies the demands of all
his divine attributes and the infinite
qualities of his eternal nature.

2:4.4 자비는 선(善)과 사랑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산물이다. 사랑하는
하느님의 선(善)한 본성은 그의 우주
자녀들의 모든 집단의 각
구성원에게 자비의 현명한
사명활동을 억제할 수 없다. 영원한
공의와 신성한 자비는 인간 체험
속에서 소위 **공정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함께 구성한다.

Mercy is the natural and inevitable
offspring of goodness and love. The
good nature of a loving Father could
not possibly withhold the wise
ministry of mercy to each member of
every group of his universe children.
Eternal justice and divine mercy
together constitute what in human
experience would be called fairness.

2:4.5 신성한 자비는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우주 차원들 사이를 조절하는
하나의 공정(公正) 기법을 나타낸다.
자비는 진화하는 유한자의 상황들에
맞추어진 최극위의 공의, 시간의
자녀들의 가장 높은 이익과 우주
복지를 만족 시키려고 수정된
영원의 정의(正義)이다. 자비는
공의(公義)에 대한
위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화하는
우주들의 물질창조체에게 그리고
종속적인 영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공정하게 적용 되듯이, 최극 공의의
요구를 납득하는 해석이다. 자비는,
그것이 신성한 지혜에 의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우주 아버지와
그의 모든 연합 창조주들의 모든 것-
아는 마음과 주권을 가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계에 있는
갖가지 지능존재들에게 현명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내려지는 낙원천국

Divine mercy represents a fairness
technique of adjustment between the
universe levels of perfection and
imperfection. Mercy is the justice of
Supremacy adapted to the situations
of the evolving finite, the
righteousness of eternity modified to
meet the highest interests and
universe welfare of the children of
time. Mercy is not a contravention of
justice but rather an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of the demands of
supreme justice as it is fairly applied
to the subordinate spiritual beings and
to the material creatures of the
evolving universes. Mercy is the
justice of the Paradise Trinity wisely
and lovingly visited upon the
manifold intelligences of the creations
of time and space as it is formulated
by divine wisdom and determined by
the all-knowing mind and the
sovereign free will of the Universal

삼위일체의 공의(公義)이다.

Father and all his associated Creators.

5. 하느님의 사랑

5. THE LOVE OF GOD

2:5.1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주의 일들에 대한 유일한 그의 개인적 태도는 항상 신성한 애정 반응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증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태양을 뜨게 하시며 의로운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게 하신다.”

"God is love"; therefore his only personal attitude towards the affairs of the universe is always a reaction of divine affection. The Father loves us sufficiently to bestow his life upon us. "He makes his sun to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2:5.2 자기 아들들의 희생이나 또는 그의 피조 종속들의 탄원 때문에 설득되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버이로서의 애정에 대한 응답으로 하느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도록 놀라운 조절자들을 보낸다. 하느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며;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는 “진리의 지식을 얻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게 하신다.” 그는 “누구도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It is wrong to think of God as being coaxed into loving his children because of the sacrifices of his Sons or the intercession of his subordinate creatures, "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It is in response to this paternal affection that God sends the marvelous Adjusters to indwell the minds of men. God's love is universal; "whosoever will may come." He would "have all men be saved by coming i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He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2:5.3 창조주들은 사람들이 신성한 법칙들을 어리석게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비참한 결과로부터 구하려는 시도를 가장 먼저 하시는 이들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아버지로서의 애정이며; 따라서 그는 때로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The Creators are the very first to attempt to save man from the disastrous results of his foolish transgression of the divine laws. God's love is by nature a fatherly affection; therefore does he sometimes "chasten us for our own profit, that we may be partakers of his

역경에 있게 한다.” 너희가 불같은 시련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고통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

2:5.4 하느님은 죄인들에게 신성하게 다정하시다. 반역자들이 정의로움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자비롭게 받아들여지며, “이는 우리 하느님은 풍성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너희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이며, 나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증여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보라.”

2:5.5 결국, 하느님의 선함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그를 사랑해야 되는 최극 이유는 아버지의 내주하는 선물—너희 두 존재가 영원히 하나가 될 그때를 그토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조절자—이다. 비록 너희가 하느님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만일 너희가 내주하는 영의 인도를 따르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애 한 생애, 우주에 우주를 거쳐서 그리고 한 시대 한 시대, 너희가 우주 아버지의 낙원천국 개인성의 현존 앞에 마침내 서게 될 때까지, 틀림없이 인도될 것이다.

2:5.6 인간 본성의 한계와 너희 물질적 창조체의 장애들이 너희가 그를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느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너희와 하느님 사이에는

holiness." Even during your fiery trials remember that "in all our afflictions he is afflicted with us."

God is divinely kind to sinners. When rebels return to righteousness, they are mercifully received, "for our God will abundantly pardon."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After all, the greatest evidence of the goodness of God and the supreme reason for loving him is the indwelling gift of the Father -- the Adjuster who so patiently awaits the hour when you both shall be eternally made one. Though you cannot find God by searching, if you will submit to the leading of the indwelling spirit, you will be unerringly guided, step by step, life by life, through universe upon universe, and age by age, until you finally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Paradise personality of the Universal Father.

How unreasonable that you should not worship God because the limitations of human nature and the handicaps of your material creation make it impossible for you to see him. Between you and God there is a

건너야 되는 엄청난 거리(물리적 공간)가 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다리를 놓아야만 하는 영적 차이의 거대한 심연(深淵)이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낙원천국 개인적 현존으로부터 너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분리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엄숙한 사실을 멈추어 숙고해 보라;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미 그 심연에 다리를 놓았다. 그는 너희가 너희의 영원한 우주 생애를 추구할 때 너희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수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 그의 영을 보내 왔다.

2:5.7 나는 그토록 위대하고 동시에 그의 하급 창조체들을 들어 올리는 사명활동에 그토록 애정을 담아 헌신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쉽고도 기쁜 일임을 발견한다. 나는 창조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조정에서 그토록 능력이 있는데도, 선함에 그토록 완전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리우는 사랑함-친절함에 그토록 신실하신 분을 당연히 사랑한다. 나는 그가 그토록 위대하고 능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선하고 자비롭다면, 똑같이 하느님을 사랑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놀라운 속성들을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본성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2:5.8 공간 우주들의 진화에 선천적으로 있는 시간의 갖가지 어려움들과 그토록 용맹스럽게 투쟁하는 창조주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종속

tremendous distance (physical space) to be traversed. There likewise exists a great gulf of spiritual differential which must be bridged; but notwithstanding all that physically and spiritually separates you from the Paradise personal presence of God, stop and ponder the solemn fact that God lives within you; he has in his own way already bridged the gulf. He has sent of himself, his spirit, to live in you and to toil with you as you pursue your eternal universe career.

I find it easy and pleasant to worship one who is so great and at the same time so affectionately devoted to the uplifting ministry of his lowly creatures. I naturally love one who is so powerful in creation and in the control thereof, and yet who is so perfect in goodness and so faithful in the loving-kindness which constantly overshadows us. I think I would love God just as much if he were not so great and powerful, as long as he is so good and merciful. We all love the Father more because of his nature than in recognition of his amazing attributes.

When I observe the Creator Sons and their subordinate administrators struggling so valiantly with the manifold difficulties of time inherent

행정자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내가 우주들의 비교적 작은, 이들 통치자에게 크고 심오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깨닫는다. 결국 나는, 영역들의 필사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우주 아버지와 신성하거나 인간인 다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개인성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식별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체험은 사랑을 받는 체험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의 최극위, 궁극위 그리고 절대라는 모든 속성들이 그로부터 없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를 최극으로 사랑할 것이다.

2:5.9 아버지의 사랑은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끝없는 순환에 두루, 우리를 따라온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성을 숙고할 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타당하고도 자연스러운 개인성 반응이 있다: 너희는 너희 조물주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겠고; 자녀들이 이 세상의 부모에게 바치는 것과 비슷한 애정을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 실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주 아버지는 그의 피조 아들들과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언제까지나 추구하기 때문이다.

2:5.10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부모의 애정이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지혜와 우주

i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s of space, I discover that I bear these lesser rulers of the universes a great and profound affection. After all, I think we all, including the mortals of the realms, love the Universal Father and all other beings, divine or human, because we discern that these personalities truly love us. The experience of loving is very much a direct response to the experience of being loved. Knowing that God loves me, I should continue to love him supremely, even though he were divested of all his attributes of supremacy, ultimacy, and absoluteness.

The Father's love follows us now and throughout the endless circle of the eternal ages. As you ponder the loving nature of God, there is only one reasonable and natural personality reaction thereto: You will increasingly love your Maker; you will yield to God an affection analogous to that given by a child to an earthly parent; for, as a father, a real father, a true father, loves his children, so the Universal Father loves and forever seeks the welfare of his created sons and daughters.

But the love of God is an intelligent and farseeing parental affection. The divine love functions in unified

아버지의 완전 본성의 다른 모든 무한 특징들과 합일된 연합 속에서 기능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느님은 아니다. 필사 존재들에 대한 신성한 사랑의 가장 큰 현시는 생각조절자들의 증여 안에서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이 땅에서 이상적인 영적 삶을 살았던 그의 미가엘 아들의 증여 삶 속에서 보인다. 각각의 인간 혼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개별존재화 하는 이는 바로 내주하는 조절자이다.

2:5.11 사랑이라는 인간의 언어 상징을 사용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의 우주 자녀들에 대한 신성한 애정을 묘사하라고 강요된 것이 가끔 나는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 단어는, 그것이 비록 존경과 헌신이라는 필사 관계들에 대한 사랑의 최고 개념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너무 자주 나타내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우주 창조체들을 향한 그의 비길 데 없는 애정을 나타내는데, 또한 사용되는 어떤 언어로 알려지기에선 온통 저급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낙원천국 아버지의 신성한 애정의 참된 본성과 절묘하게 아름다운 의의(意義)를 사람 마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숭고한 그리고 전용적인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없음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2:5.12 사람이 한 개인성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하느님의 왕국은 단지 선(善)한 왕국이 될 뿐이다.

association with divine wisdom and all other infinite characteristics of the perfect nature of the Universal Father. God is love, but love is not God. The greatest manifestation of the divine love for mortal beings is observed in the bestowal of the Thought Adjusters, but your greatest revelation of the Father's love is seen in the bestowal life of his Son Michael as he lived on earth the ideal spiritual life. It is the indwelling Adjuster who individualizes the love of God to each human soul.

At times I am almost pained to be compelled to portray the divine affection of the heavenly Father for his universe children by the employment of the human word symbol *love*. This term, even though it does connote man's highest concept of the mortal relations of respect and devotion, is so frequently designative of so much of human relationship that is wholly ignoble and utterly unfit to be known by any word which is also used to indicate the matchless affection of the living God for his universe creatures! How unfortunate that I cannot make use of some supernal and exclusive term which would convey to the mind of man the true nature and exquisitely beautiful significance of the divine affection of the Paradise Father.

When man loses sight of the love of a personal God, the kingdom of God becomes merely the kingdom of good.

신성한 본성인 무한한 합일성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의 창조체들과 하느님의 모든 개인적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다.

Notwithstanding the infinite unity of the divine nature, love is the dominant characteristic of all God's personal dealings with his creatures.

6. 하느님의 선함

6. THE GOODNESS OF GOD

2:6.1 물리적 우주에서 우리는 신성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지적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식별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선함은 오직 개인적 종교 체험의 영적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그것의 참된 본질에 있어서, 종교는 하느님의 선함에 대한 신앙-신뢰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하느님은 위대하고 절대적이며 심지어는 지능적이고 개인적 일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 하느님은 또한 도덕적임에 틀림없다; 그는 선하심에 틀림없다. 사람은 위대한 하느님을 두려워했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오직 선하신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한다. 하느님의 이 선함은 하느님의 개인성의 일부분이며, 그것에 대한 그 충만한 계시는 오직 하느님의 믿는 아들들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서만 나타난다.

In the physical universe we may see the divine beauty, in the intellectual world we may discern eternal truth, but the goodness of God is found only in the spiritual world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In its true essence, religion is a faith-trust in the goodness of God. God could be great and absolute, somehow even intelligent and personal, in philosophy, but in religion God must also be moral; he must be good. Man might fear a great God, but he trusts and loves only a good God. This goodness of God is a part of the personality of God, and its full revelation appears only i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believing sons of God.

2:6.2 종교는 영 본성의 초(超)세계가 인간 세계의 근본적 필요를 인식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화종교는 윤리적으로 될 수 있지만, 오직 계시 종교만이 참되게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이 된다. 하느님이 임금으로서의 도덕으로 지배하는 신(神)이라는 옛 개념은 예수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의

Religion implies that the superworld of spirit nature is cognizant of, and responsive to, the fundamental needs of the human world. Evolutionary religion may become ethical, but only revealed religion becomes truly and spiritually moral. The olden concept that God is a Deity dominated by kingly morality was upstepped by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인,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는 차원으로
향상되었는데, 필사자의 체험에서
이것보다 더 온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2:6.3 “하느님의 선함의 풍부함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뉘우침으로 인도한다.
“모든 선한 재능과 모든 완전한
재능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하느님은 선하시며; 그는
사람들의 혼이 쉴 영원한
피난처이다.” “주님 하느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그는 오래-참으시고
선(善)과 진리가 풍부하시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고 알라! 그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 연민이 가득하시다.
그는 구원의 하느님이시다.” “그는
절망에 빠진 자를 고치시고 혼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는 사람의 모든-
힘을 지닌 은인이시다.”

2:6.4 왕-심판관으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비록 높은
도덕기준을 육성하고 그리고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었지만, 개별 신자를 시간과
영원 안에서의 그의 지위에 있어서
불안이라는 슬픈 처지에 내버려
두었다. 후기의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임을
선언하였으며; 예수는 하느님을 각
인간 존재의 아버지로 드러냈다.
예수의 일생은 하느님에 대한 필사자
개념 전체를 초월하여 조명하고
있다. 자신을 생각지 않는 것은
부모의 사랑 속에 선천적으로 있다.
하느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것이

Jesus to that affectionately touching
level of intimate family morality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an
which there is none more tender and
beautiful in mortal experience.

The "richness of the goodness of God
leads erring man to repentance."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comes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God is good; he is the eternal
refuge of the souls of men." "The
Lord God is merciful and gracious.
He i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him." "The Lord is
gracious and full of compassion. He is
the God of salvation."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
wounds of the soul. He is man's all-
powerful benefactor."

The concept of God as a king-judge,
although it fostered a high moral
standard and created a law-respecting
people as a group, left the individual
believer in a sad position of insecurity
respecting his status in time and in
eternity. The later Hebrew prophets
proclaimed God to be a Father to
Israel; Jesus revealed God as the
Father of each human being. The
entire mortal concept of God is
transcendently illuminated by the life
of Jesus. Selflessness is inherent in
parental love. God loves not like a
father, but as a father. He is the
Paradise Father of every universe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
그는 모든 우주 개인성의 낙원천국 아버지시다.

2:6.5 정의(正義)는 하느님이 우주의 도덕 법칙의 근원임을 의미한다. 진리는 하느님을 계시자로, 가르치는 자로 보여준다. 그러나 사랑은 애정을 주고 갈망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이, 납득하는 동료관계를 추구한다. 정의(正義)는 신성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사랑은 아버지의 태도이다. 하느님의 정의(正義)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신을 생각지 않는 사랑과 모순된다는 잘못된 추측은, 신(神)의 본성에 합일성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리고는 하느님의 합일성과 자유-의지성 둘 모두에 대한 철학적 공격인, 보상 교리라는 고심작으로 직접 가도록 이끌었다.

2:6.6 그의 영이 땅에 있는 그의 자녀들 속에 거주하는, 하늘에 계신 자애로운 아버지는, 분리된 개인성—공의의 개인성 그리고 자비의 개인성—이 아니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 또는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중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신성한 정의(正義)는 엄격한 인과응보의 공의(公義)로 지배되지 않으며;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은 심판관으로서의 하느님을 초월한다.

2:6.7 하느님은 결코 분노하거나 복수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지혜가 종종 그의 사랑을 억제하며 한편, 공의(公義)가 그의 거부된

personality.

Righteousness implies that God is the source of the moral law of the universe. Truth exhibits God as a revealer, as a teacher. But love gives and craves affection, seeks understanding fellowship such as exists between parent and child. Righteousness may be the divine thought, but love is a father's attitude. The erroneous supposition that the righteousness of God was irreconcilable with the selfless love of the heavenly Father, presupposed absence of unity in the nature of Deity and led directly to the elaboration of the atonement doctrine, which is a philosophic assault upon both the unity and the free-willness of God.

The affectionate heavenly Father, whose spirit indwells his children on earth, is not a divided personality -- one of justice and one of mercy -- neither does it require a mediator to secure the Father's favor or forgiveness. Divine righteousness is not dominated by strict retributive justice; God as a father transcends God as a judge.

God is never wrathful, vengeful, or angry. It is true that wisdom does often restrain his love, while justice conditions his rejected mercy. His

자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정의(正義)의 사랑은 죄에 대한 미움과 같은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일관성 없는 개인성이 아니며; 신성한 합일성은 완전하다. 낙원천국 삼위일체 안에는, 하느님과 합동자들의 영원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합일성이 있다.

2:6.8

하느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한 말은 철학적으로는 참말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초월적 개인성이며, 개인만이 다른 개인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다. 죄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다. 하느님은 죄인이 개인성 실체(잠재적으로 영원한)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반면, 죄에 대해서는 하느님이 어떤 개인적 태도도 취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죄는 영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은 개인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오직 하느님의 공의는 단지 그것의 실재에 대해 인식할 뿐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며; 하느님의 법이 죄를 괴멸시킨다. 필사마음이 내주하는 영 조절자와 스스로를 충만히 동일시 할 수도 있는 것과 똑같이, 만일 죄인이 자기 자신을 죄와 최종적으로 온통 동일시하면 신성한 본성이 이 태도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죄-동일시된 필사자는 본성에서 온통 비(非)영적인 상태가 되며 (따라서 개인성으로 비(非)실제적이며) 결국에는, 존재의 소멸을 체험하게 된다. 비(非)실체는, 심지어는

love of righteousness cannot help being exhibited as equal hatred for sin. The Father is not an inconsistent personality; the divine unity is perfect. In the Paradise Trinity there is absolute unity despite the eternal identities of the co-ordinates of God.

God loves the sinner and hates the sin: such a statement is true philosophically, but God is a transcendent personality, and persons can only love and hate other persons. Sin is not a person. God loves the sinner because he is a personality reality (potentially eternal), while towards sin God strikes no personal attitude, for sin is not a spiritual reality; it is not personal; therefore does only the justice of God take cognizance of its existence. The love of God saves the sinner; the law of God destroys the sin. This attitude of the divine nature would apparently change if the sinner finally identified himself wholly with sin just as the same mortal mind may also fully identify itself with the indwelling spirit Adjuster. Such a sin-identified mortal would then become wholly unspiritual in nature (and therefore personally unreal) and would experience eventual extinction of being. Unreality, even incompleteness of creature nature, cannot exist forever in a progressively real and increasingly spiritual universe.

창조체 본성의 미완성조차도,
점진적으로 현실이 되고 점점 더
영적으로 되는 우주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

2:6.9 개인성의 세계와 대면할 때, 하느님은 사랑하는 개인임이 발견되며; 영적 세계와 대면할 때에는, 그는 개인적 사랑이며; 종교적 체험에 있어서는 그는 둘 모두에 해당한다. 사랑은 하느님의 자발적 의지를 그렇게 확인해 준다. 하느님의 선함은 신성한 자유의지성—사랑하고, 자비를 보이고, 인내를 나타내고, 용서를 베푸는 보편적 성향—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

Facing the world of personality, God is discovered to be a loving person; facing the spiritual world, he is a personal love; in religious experience he is both. Love identifies the volitional will of God. The goodness of God rests at the bottom of the divine free-willness -- the universal tendency to love, show mercy, manifest patience, and minister forgiveness.

7. 신성한 진리와 아름다움

7. DIVINE TRUTH AND BEAUTY

2:7.1 모든 유한(有限) 지식과 창조체 납득은 상대적이다. 정보와 지능은, 비록 높은 근원들에서 단편적으로 수집되었더라도, 오직 상대적으로 완벽하고 부분적으로 정확하며 개인적으로 참될 뿐이다.

All finite knowledge and creature understanding are *relativ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gleaned from even high sources, is only relatively complete, locally accurate, and personally true.

2:7.2 물리적 사실들은 상당히 일정하지만, 진리는 우주의 철학에 있어서 살아있고 유연한 요소이다. 진화하는 개인성들은 그들의 교통에서 부분적으로 현명하고 상대적으로 참될 뿐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다. 한 장소에서 겉으로 보기에 온통 참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른 창조 구역에서는 오직 상대적으로 참된 것일 수 있다.

Physical facts are fairly uniform, but truth is a living and flexible factor in the philosophy of the universe. Evolving personalities are only partially wise and relatively true in their communications. They can be certain only as far as their personal experience extends. That which apparently may be wholly true in one place may be only relatively true in another segment of creation.

2:7.3 신성한 진리, 최종 진리는 한결같고 보편적이지만, 영적인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구체에서 흘러져 나온 수많은 개별존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지식의 완벽성에서의 이 상대성 때문에 세부사항에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체험의 길이와 정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체험의 충만함에서 다를 수 있다. 첫째 위대한 근원이며 중심의 법칙과 뜻, 생각과 태도가 영원히, 무한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참된 반면; 동시에, 각 우주, 체계, 세계와 창조된 지능존재에 대하여 이것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조절하는 것은, 무한 영과 다른 모든 연합된 천상의 개인성들의 지역적 계획과 과정에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창조주 아들들이 그들 각자의 우주에서 기능하는 대로 그들의 계획과 기법에 일치한다.

Divine truth, final truth, is uniform and universal, but the story of things spiritual, as it is told by numerous individuals hailing from various spheres, may sometimes vary in details owing to this relativity in the completeness of knowledge and in the repleteness of personal experience as well as in the length and extent of that experience. While the laws and decre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First Great Source and Center are eternally, infinitely, and universally true; at the same time, their application to, and adjustment for, every universe, system, world, and created intelligence, are in accordance with the plans and technique of the Creator Sons as they function in their respective universes, as well as in harmony with the local plans and procedures of the Infinite Spirit and of all other associated celestial personalities.

2:7.4 물질주의의 잘못된 과학은 필사 사람을 우주 속에 버림을 받은 것으로 판결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적인 지식은 잠재적으로 악이며; 그것은 선과 악 둘로 이루어진 지식이다. 진리는 충만하면서도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사람이 진리를 찾을 때, 그는 신성한 실재를 추구한다.

The false science of materialism would sentence mortal man to become an outcast in the universe. Such partial knowledge is potentially evil; it is knowledge composed of both good and evil. Truth is beautiful because it is both replete and symmetrical. When man searches for truth, he pursues the divinely real.

2:7.5 철학자들은 추상적 관념의 오류, 실체의 한 측면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리고는 그러한 고립된 양상이 진리 전체가 되는 것으로 장담하는

Philosophers commit their gravest error when they are misled into the fallacy of abstraction, the practice of focusing the attention upon one aspect

습관으로 그들이 잘못 인도될 때 그들의 가장 중대한 잘못을 범한다. 현명한 철학자는 항상 모든 우주 현상 뒤에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선재(先在)하는 창조적 설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창조자의 생각은 항상 창조적 행동보다 앞선다.

of reality and then of pronouncing such an isolated aspect to be the whole truth. The wise philosopher will always look for the creative design which is behind, and pre-existent to, all universe phenomena. The creator thought invariably precedes creative action.

2:7.6 지적 자아-의식은, 진리의 아름다움, 그것의 영적 본질특성을, 그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일관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항상-현존하는 진리의 영의 어김없는 반응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은 진리를 인식함으로부터 생기는데, 이는 진리가 **활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망과 슬픔은 실수 위에서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어서, 그것은 체험 속에서 실체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진리는 그 **영적 향기**에 의해 가장 잘 알려진다.

Intellectual self-consciousness can discover the beauty of truth, its spiritual quality, not only by the philosophic consistency of its concepts, but more certainly and surely by the unerring response of the ever-present Spirit of Truth. Happiness ensues from the recognition of truth because it can be *acted out*; it can be lived. Disappointment and sorrow attend upon error because, not being a reality, it cannot be realized in experience. Divine truth is best known by its *spiritual flavor*.

2:7.7 영원한 탐구는 통합을 위한, 신성한 결합을 위한 것이다. 멀리-퍼지는 물리적 우주는 낙원천국 섬에서 결합하며; 지적 우주는 마음의 하느님, 공동행위자 안에서 결합하며; 영적 우주는 영원 아들의 개인성 안에서 결합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에 속한 고립된 필사자는 내주하는 생각조절자와 우주 아버지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결합한다. 사람의 조절자는 하느님의 단편이고 신성한 통합을 영속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은 첫째근원이며 중심의 낙원천국 신(神)과 함께 그리고 그

The eternal quest is for unification, for divine coherence. The far-flung physical universe coheres in the Isle of Paradise; the intellectual universe coheres in the God of mind, the Conjoint Actor; the spiritual universe is coherent in the personality of the Eternal Son. But the isolated mortal of time and space coheres in God the Father through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 and the Universal Father. Man's Adjuster is a fragment of God and everlastingly seeks for divine unification; it coheres with, and in,

안에서 결합한다.

the Paradise Deity of the First Source and Center.

2:7.8 최극 아름다움을 식별함은 실체의 발견 그리고 집대성이다: 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신성한 선(善)을 식별함, 그것은 궁극의 아름다움이다. 인간 예술의 매력조차도 그 합일성의 조화 속에 있다.

The discernment of supreme beauty is the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reality: The discernment of the divine goodness in the eternal truth, that is ultimate beauty. Even the charm of human art consists in the harmony of its unity.

2:7.9 히브리 종교의 큰 오류는 과학의 사실적 진리들과 예술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하느님의 선함과 연합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문명이 진보됨에 따라, 그리고 종교가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아름다움을 무시하도록 하느님의 선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리석은 길을 일관되게 추구한 이래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고립된 선(善)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열된 관념으로부터 돌아서려는 경향이 점점 더 생겨났다. 많은 20-세기의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붙잡는데 실패한, 현대 종교의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고립적인 도덕성은, 만일 그 도덕적 명령에 추가하여 과학과 철학과 영적 체험의 진리들을, 물질 창조와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그리고 진정한 성격 성취라는 웅장함과 똑같이 배려한다면, 그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The great mistake of the Hebrew religion was its failure to associate the goodness of God with the factual truths of science and the appealing beauty of art. As civilization progressed, and since religion continued to pursue the same unwise course of overemphasizing the goodness of God to the relative exclusion of truth and neglect of beauty, there developed an increasing tendency for certain types of men to turn away from the abstract and dissociated concept of isolated goodness. The overstressed and isolated morality of modern religion, which fails to hold the devotion and loyalty of many twentieth-century men, would rehabilitate itself if, in addition to its moral mandates, it would give equal consideration to the truths of science, philosophy, and spiritual experience, and to the beauties of the physical creation, the charm of intellectual art, and the grandeur of genuine character achievement.

2:7.10 이 시대의 종교적 도전은,

The religious challenge of this age is

조화우주의 진리와 우주 아름다움 그리고 신성한 선(善)의 확대되고 절묘하게 집대성된 현대 개념들로부터 살아 나오는, 새롭고도 매력적인 생활철학을 과감히 구축하게 될, 그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진 선견지명이 있고 진취적인 남녀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한 도덕의 새롭고도 정의로운 시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인간의 혼속에 있는 가장 좋은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진리(眞)와 아름다움(美)과 선(善)함은 신성한 실체들이며, 사람이 영적 삶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영원자의 이 최극 본질특성들은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점점 더 합동되고 통합될 것이다.

2:7.11 모든 진리—물질적, 철학적, 또는 영적—는 아름다운 동시에 선하다. 모든 실제적 아름다움—물질적 예술 또는 영적 균형성—은 참된 동시에 선하다. 모든 진정한 선(善)—개인적 도덕성, 사회적 공평성, 또는 신성한 사명활동, 그 어떤 것이든지—은 똑같이 참되고 아름답다. 건강과 건전한 마음과 행복은 인간 체험 속에서 그것들이 혼합되듯이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善)의 집대성이다. 능률적인 삶의 그러한 차원들은 에너지 체계들과 관념 체계들 그리고 영 체계들의 통합을 통하여 나온다.

2:7.12 진리는 응집력이 있고, 아름다움은 끌어당기며, 선(善)은 안정을 이룬다. 실제적인 이러한 가치들이

to those farseeing and forward-looking men and women of spiritual insight who will dare to construct a new and appealing philosophy of living out of the enlarged and exquisitely integrated modern concepts of cosmic truth, universe beauty, and divine goodness. Such a new and righteous vision of morality will attract all that is good in the mind of man and challenge that which is best in the human soul. Truth, beauty, and goodness are divine realities, and as man ascends the scale of spiritual living, these supreme qualities of the Eternal become increasingly coordinated and unified in God, who is love.

All truth -- material, philosophic, or spiritual -- is both beautiful and good. All real beauty -- material art or spiritual symmetry -- is both true and good. All genuine goodness -- whether personal morality, social equity, or divine ministry -- is equally true and beautiful. Health, sanity, and happiness are integration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as they are blended in human experience. Such levels of efficient living come about through the unification of energy systems, idea systems, and spirit systems.

Truth is coherent, beauty attractive, goodness stabilizing. And when these values of that which is real are co-

개인성 체험 속에서 합동될 때, 그 결과는 지혜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지고 충성에 의해 자격이 갖추어지는 높은 계층의 사랑이다. 모든 우주 교육의 실제적인 목적은 세계들의 고립된 자녀가 그의 확대되는 체험의 더 큰 실체들과 더 나은 합동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실체는 인간 차원에서는 유한하고, 좀 더 높은 그리고 신성한 차원들에서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2:7.13 [유버사에 있는 옛적으로 늘계신이들의 권한에 의해 활동하는 신성한 조연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ordinated in personality experience, the result is a high order of love conditioned by wisdom and qualified by loyalty. The real purpose of all universe education is to effect the better co-ordination of the isolated child of the worlds with the larger realities of his expanding experience. Reality is finite on the human level, infinite and eternal on the higher and divine levels.

Presented by a Divine Counselor acting by authority of the Ancients of Days on Uversa.